

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지원 전용기금 조성’ 조례 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로 매년 3억원 확보 전국 첫 사례...복지 증진·자활 지원에만 투입

광주 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장애인 자활·복지 관련 사업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이목을 끌고 있다. 서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신설, 장애인 복지 증진·자활자립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각 지자체 자치법규 중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 장애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기금 재원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항목을 신설, 과태료 수입액은 기존의 일반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증진 목적으로만 쓰인다.

서구 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매년 3~4억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조성 목표액은 3억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 사이 서구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2017년 3억3700여만 원 ▲2018년 3억1800여만 원 ▲2019년 4억 4500여만 원 등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자활 관련 사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교

통약자 이동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또 장애인 단 교육·자활 일자리 지원 등으로 운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복지 사각에 방치된 일부 장애인들에게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구례군, 치매 어르신 가가호호 방문서비스 실시

비대면 사업 일환...대상자 개인별 수준 맞는 맞춤형 인지활동



구례군은 지난 14일부터 등록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과 강사가 치매 어르신 가

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후 인지 워크북 교재와 교구를 활용하여 인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직원과 대상자의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으로 코

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1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특히 2020년 치매안심마음인 간전면의 치매어르신을 먼저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상담은 구례군 치매안심센터(780-2558) 또는 치매상담콜(1899-9988)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구례=박진호기자

순천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행

65세 이상 건강측정 모니터링 사업 600명 모집...내달부터 운영

순천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2020년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보건소 건강관리 간호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압기, 당뇨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혈압·혈당·운동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참여대상 6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운영에 들어간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만 65부터 75세까지로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본인이나 보호자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든 어르신이며, 희망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749-6689)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담양군, 치매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치매의날 보건복지부장관상

담양군이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치매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마음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치매예방검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금성면 석현리와 고서면 고읍리 2개 마을을 지정해 1:1 대면 방



문 돌봄 서비스 및 치매인지 관리를 하며 지역내 106개소 치매연계기관과 연계로 치매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해지자 컴퓨터프로그램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1:1 찾아가는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과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담양=박종영기자

“아이 낳은 가정에 간호사·복지사가 찾아갑니다”

해남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본격 추진

해남군은 영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단계부

터 영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임신부 가정에 찾아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산 후 8주 이내 1

회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우울평가 및 정서적 지지, 모유수유, 육아환경 교육 등 전반적인 양육 상담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한 지속방문이 필요하면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남군에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군청(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방문 또는 전화(530-5977)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